

박신혜, 미국내 '한국 드라마 여배우' 인기 1위
연기자 박신혜가 미국의 한국 드라마 팬이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 1위에 올랐다. 6일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신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센터가 내놓은 'K-콘텐츠 미국 소비자 조사' 결과 미국 거주 한국 드라마 팬이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로 꼽혔다고 밝혔다.



봄 타는 걸그룹, 섹시바람 솔솔~



멜로디데이 '키스춤'으로 섹시함 어필
브레이브걸스 '롤린' 뮤비 19급 판정 이슈

새 봄을 맞는 가요계에 '섹시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청순·발랄 일색으로 흐르던 걸그룹 시장에 섹시 콘셉트가 하나들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기보다는 '분위기'로 섹시함을 어필한다.

섹시 바람의 표본은 멜로디데이가 열었다. 2월 중순 '키스 온 더 립스'로 컴백한 멜로디데

이는 타이트한 미니원피스 차림의 여성미 넘치는 퍼포먼스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10대 나이의 어린 걸그룹 틈에서 이들의 무대는 은근한 섹시미를 풍기고 있다. 특히 맨발 퍼포먼스는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7일 돌아오는 브레이브걸스는 섹시 바람을 절정으로 이끈다. EDM(전자댄스음악)을 앞세운 이들은 장르 특유의 몽환적이고 섹시한 분위기로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이미 신곡 '롤린' 뮤직비디오와 티저 영상은 '19급' 판정을 받았다. 속옷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은 멤버들이 함께 기대אות 퍼포먼스

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에 걸렸다.

용감한형제가 론칭한 브레이브걸스는 2011년 데뷔 이후 건강하고 섹시한 매력으로 어필해왔다. 이들은 변함없는 콘셉트로 돌아오지만, 또래 다른 걸그룹들이 '소녀지향적 모습'인 까닭에 상대적으로 섹시함이 돋보인다. 2015년 여자친구와 트와이스가 등장한 이후 에이핑크, 오마이걸, 우주소녀, 라붐 등 대다수의 걸그룹들은 청순하고 발랄한 소녀의 매력을 앞세웠다.

섹시 바람은 4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귀여움과 섹시함을 오가는 걸스태이가 3월 말

컴백을 준비 중이고, EXID 역시 한층 여성적인 매력을 앞세워 4월 중순 컴백한다. '모델돌'로 불리며 섹시 걸그룹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나인뮤지스 역시 컴백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브레이브걸스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몇 년 동안 소녀 취향의 대중음악 콘셉트가 많았다. 이에 상대적으로 여성미가 많이 어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브레이브걸스 역시 20~30대가 좋아하는 걸그룹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gummy@donga.com



이유리

돌아온 이유리 '장보리' 굴레 벗다

걸크러시 매력, '아버지가...' 시청률 26%

연기자 이유리가 완벽하게 변신하며 인기를 예고했다.

이유리는 4월 첫 방송한 KBS 2TV 주말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를 통해 지금까지도 회자되며 그의 '인생 캐릭터'라 불리는 '왔다! 장보리'(2014년)의 연민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유리는 '왔다! 장보리'에서 도를 지나치는 악행을 일삼았던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했다. 이어 지난해 '천상의 악숙'에서도 이 같은 이미지를 이어가 악역의 테두리에서 머무르는 듯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상해' 속 이유리는 그동안 그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는 악랄한 모습을 지웠다.

과감하게 변화를 선택해 성공을 이끌었다. 극중 이유리는 변호사를 연기하며 여성들이 선호하는 '걸크러시' 매력을 뽐내낸다. 3년의 '취준생' 생활을 마감하고 취업을 하게 된 동생이 과거 따돌림 피해를 입힌 고교 동창이 근무한다는 이유로 입사를 망설이자 독심을 쏟아내는 장면은 그중 압권이었다. 이유리는 "세상에 행복한 직장 어디 있느냐"는 메시지를 담은 방대한 대사를 정확하게 구사했다. 시원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헤어스타일에도 변화를 줬다. 지난해 뮤지컬 '오! 캐롤'을 위해 긴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던 이유리는 부드러운 감조하기 위해 불임머리와 굵은 웨이브로 풍성한 스타일을 연출했다.

이런 변신을 통한 이유리의 열연은 드라마 시작과 동시에 인기 상승세의 일등공신이었다. 1화 22.9%, 2화 26.5%(이상 닐슨미디어)의 시청률로 초반부터 시청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유리 측 관계자는 "2화까지는 여성 시청자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 강조됐지만 향후에는 남성도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를 주면서 연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김과장'은 김은숙 작가를 좋아해

'도깨비' '태후' OST 코믹장면에 활용
김성근 CP "패러디 일종으로 쓴 것"

KBS 2TV 수목드라마 '김과장'이 센스 넘치는 배경음악으로 또 다른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과장'은 올해 초 인기리에 종영한 '도깨비'와 지난해 최고 히트작 '태양의 후예' 수록곡을 드라마에 삽입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모두 김은숙 작가가 집필한 작품이어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두 드라마 삽입곡은 '김과장'의 코믹함을 더하며 보는 재미를 높이고 있다. 극중 유일하게 러브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경리부 신입 선상태(김선호)와 옹골숙이(임화영)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며 웃음을 제공한다.

1일 방송한 11회에는 '태양의 후예'에서 거미가 부른 '유아 마이 에브리씽'이 등장했다. 김과장(남궁민)이 선상태와 옹골숙이를 위해 주선할 소개팅의 상대가 곧 자신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장면이었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 주위 배경을 흑백 영상으로 처리해 연출하는 등 재미를 강조했다. 음악은 '태양의 후예'에서 유시진(송



제작진의 위트가 돋보인다. KBS 2TV '김과장'이 최근 등장인물의 운명적인 만남을 코믹하게 표현하기 위해 '태양의 후예' OST 수록곡 중 '유아 마이 에브리씽'을 삽입했다.
사진출처 | '김과장' 화면 캡처

중기)과 강모연(송혜교)이 서로를 그리워할 때마다 흘러나와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했던 것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활용됐다.

2월15일 7회에서는 선상태와 옹골숙이 서로 스쳐 지나가며 첫 눈에 반하는 순간 '도깨비' 속 크러쉬의 '뷰티풀'이 화면을 채웠다. '도깨비'에서도 김신(공유)이 자은탁(김고은)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최대일 때 나왔던 것처럼 '김과장'의 두 사람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서로에게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태양의 후예'와 '도깨비'의 삽입곡은 OST로도 화제를 모아 시청자에게 익숙한 음악. '김과장'은 이를 적절히 이용해 시청자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저작권은 사용 권한을 정식 구입해 문제될 부분은 없다.

'김과장'의 김성근 CP(책임프로듀서)는 "우연찮게 모두 김은숙 작가가 집필한 드라마의 삽입곡"이라며 "패러디의 일종으로 인기곡을 활용한 것이다. '김과장'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기대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한한령?...“제 살길 직접 찾자”

중국 사드 보복으로 콘텐츠 수출 막히자
일본·말레이시아 등 다른 한류 통로 이동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에 연예계도 대응책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특히 지난해 8월 처음 불거진 '한한령'으로 다른 산업부문보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고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지만 중국 내 남아 있던 한류 콘텐츠까지 최근 전면 유통 금지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당시부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온 연예계는 더 이상 분위가 호전이나 상황 반전 등 외부적인 요인에 기대지 말고 "제 살 길을

직접 찾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연예계는 중국의 한류 콘텐츠 수출 통로가 막히면서 대만, 홍콩 등 중국어권 나라를 우회 공략하는가 하면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등 또 다른 한류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주로 중국에서 한류스타들의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을 주관했던 한류에이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의 직접적인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사드 국면'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으로 관망했다"며 "하지만 중국의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적어졌고 오히려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 우려되면서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리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한류스

타들은 홍콩과 대만 등 동남아시아에서 활발히 팬미팅을 진행하는 등 현지 팬들과 접촉하며 '제3의 한류시장'을 키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국 한류열풍을 재조성한 드라마 제작사와 연예기획사들도 "이번 기회에 콘텐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에서 주로 활동해왔던 박해진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 황지선 대표는 "2~3년 사이 한류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곳곳에서 명과 암이 생겼다. 이제는 거품을 빼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측도 "한한령을 기점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콘텐츠의 경쟁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 사전제작이나 시즌제 드라마 등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ga.com



설리

최자

설리-최자 끝내 결별

2년 7개월 연애 끝...선후배로 남기로

에프엑스 출신 연기자 설리(23)와 다이아믹 듀오의 최자(37)가 끝내 결별했다. 2014년 8월 공개 연애를 시작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6일 이들의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바쁜 스케줄과 서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게 됐다"며 "서로의 미래를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교제 초기 14세의 나이 차이로 화제를 모았지만, 소속사의 설명처럼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을 극복하지 못했다. 설리는 그동안 대중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분방한 행동을 주로 일삼으며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 모았다. 흰 거품을 입에 넣은 모습부터 남자친구와 침대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SNS를 통해 올리는 사진마다 누리꾼의 일방아에 오르내렸다. 그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최자는 설리의 일부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랜 끈에 헤어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연 기자

연예뉴스 스테이션

리쌍, 건물 임차인과 5년 분쟁 마무리

듀오 리쌍과 이들 소유의 건물 임차인이 5년 동안 벌여온 분쟁을 끝냈다. 리쌍의 김과 개리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공동소유 건물의 임차인인 곽창집 '우장창창' 서운수 대표와 오랜 갈등을 벌여왔다. 리쌍은 2012년 건물을 매입한 뒤 2010년부터 '우장창창'을 운영해온 서 대표에게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서 대표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이어갔다. 리쌍은 6일 "원만히 합의가 됐다"며 사실을 알리고 "법과 제도가 세입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보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서 대표도 "불합리한 상가법과 제도로 인한 임차상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기, 아시아 투어 2만5000여 팬과 만나

가수 겸 연기자 이준기가 아시아 투어 무대에서 모두 2만5000여 팬을 만났다. 이에 힘입어 4월 서울에서 앙코르 공연도 연다. 소속사 나무엑터스에 따르면 이준기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4일까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모두 5개국 7개 도시에서 아시아 투어 콘서트 'Thank you'를 펼쳤다. 나무엑터스는 "4월 앙코르 콘서트를 열 예정이며 티켓 오픈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연기자 하연수, 사진집 발간

연기자 하연수가 사진집을 발간했다. 하연수는 포토그래퍼 리애와 함께 유럽을 돌며 직접 찍은 사진을 담은 사진집 '온 더 웨이 홈'(on the way home)을 내놨다. 두 사람은 약 1년 동안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를 여행하며 기록을 남겼다. 하연수는 12일 오후 3시 서울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출간 기념 사인회를 연다.

구글플레이 게임 매출 랭킹

순위	게임명	서비스사
1	리니지2 레볼루션	Netmarble Games
2	모두의 마블 for Kakao	Netmarble Games
3	파이널 블레이드	NCSOFT
4	세븐나이츠 for Kakao	Netmarble Games
5	삼국 블레이드	4:33
6	리니지 레드나이츠	NCSOFT
7	데스티니 차일드 for Kakao	Next Floor Corp.
8	Pokemon GO	Niantic, INC.
9	클래시 로얄	Supercell
10	듀오리진	WEBZEN INC.

편집 | 유진환·심승수 기자